

# 우즈베키스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7. 4.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8
IV. 국제신인도 .....	10
V. 종합의견 .....	11

## I. 일반개황

면적	447천 km <sup>2</sup>	G D P	668 억 달러 (2016년)
인구	31.30 백만 명	1 인 당 GDP	2,131 달러 (2016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Som
대외정책	러시아 및 중국과의 협력 지속	환율(달러당)	2,967 (2016년)

-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3,13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천연가스(1.1조 m<sup>3</sup>), 원유(6억 배럴), 우라늄(6만 5,600톤), 금(1,700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주요 수출품인 원자재 가격 하락, 러시아 경기침체에 따른 자동차 수출량 감소, 러시아로부터의 송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6%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
- 2016년 9월, 1991년 이후 재임해온 카리모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2016년 12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88.6%의 득표율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선출되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에너지 부문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에너지 플랜트 부문의 발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중내륙국이라는 취약한 지리적 위치를 개선하기 위한 운송망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등 주변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러시아, 중국과의 교역, 투자 협력을 지속하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sup>e</sup>	2017 <sup>f</sup>
경제성장률	8.0	8.1	8.0	6.0	6.0
재정수지 / GDP	2.4	2.2	0.9	0.0	0.1
소비자물가상승률	11.7	9.1	8.5	8.4	9.6

자료: IMF, EIU

□ 2016년의 경제성장률은 에너지 자원, 금, 면화 등 원자재 국제가격의 하락으로 둔화

- 가스, 면화, 금 등이 주요 수출품으로, 1990년대 한국기업에 의해 발전된 자동차 산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제조업의 발전이 취약하여, 국가경제가 대외환경의 변동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
- 2016년에는 에너지 자원, 면화, 금 등 에너지 국제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6.0%로 하락하였으며, 2017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경제성장률은 6.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수입품 가격 상승에 따라 물가상승률 상승 전망

- 국내제조업이 취약하여 다수의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므로 환율 상승에 따라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여 왔음.
- 2016년에는 솜(Som)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품 가격 상승 등으로 8.4%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2017년에도 9.6%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흑자폭 감소

- 천연가스, 면화, 금 등 원자재 수출을 통한 재정수입으로 소폭의 재정흑자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과 인프라 개발, 산업발전전

략 추진 등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폭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14년의 2.2%에서 2015년에는 0.9%, 2016년 0%로 점차 하락하였으며, 2017년에도 0.1%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수출의 원자재 의존도가 높아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한 경제구조

- 에너지 자원, 면화, 금 등 1차 산업의 수출비중이 높아 원자재 국제가격 변화에 취약한 경제구조임.
- 전체 수출에서 에너지 자원의 비중은 23%, 금과 면화의 비중은 각각 13.3%, 9.7%로 주요 3대 원자재가 46%를 차지하고 있음.

#### □ 낮은 경제자유도와 엄격한 외환통제

- 개인재산권 보호, 정부개입 정도와 기업, 금융, 노동시장의 자유 등 항목으로 평가되는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의 경제자유도 지수는 2017년 평가대상 180개국 가운데 148위를 기록.
- 정부의 과도한 외환통제로 현지화의 외화환전에 반 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외국투자기업들은 원자재 수입, 과실송금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나. 성장 잠재력

#### □ 천연가스, 원유, 우라늄 등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의 고부가가치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추진

- 2015년 기준 천연가스 1.1조 m<sup>3</sup>, 원유 6억 배럴 등의 에너지 자원과 각종 광물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원수출을 통해 사회·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최대 수출품은 천연가스로, 생산량은 2015년 기준 연 577억 m<sup>3</sup>(전 세계

생산의 1.6%)에 달하고 있으며, 러시아로 41억 m<sup>3</sup>, 중국으로 24억 m<sup>3</sup>, 카자흐스탄으로 20억 m<sup>3</sup>가 수출되었음.

- 에너지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석유화학 플랜트 부문을 육성하고 있음.
-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수르길 프로젝트, 칸딤 프로젝트\*, 메탄올과 올레핀을 생산하는 MTO(Metanol-To-Olefin)\*\* 등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 칸딤 프로젝트는 전체 26억 6,000만 달러 규모의 가스 처리시설 프로젝트이며, 현대엔지니어링이 20억 1,000만 달러의 EPC 계약을 체결함.
  - \*\* MTO(Metanol-To-Olefin) 프로젝트는 전체 45억 달러규모의 메탄올 처리시설 프로젝트이며, GS 건설이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2017~2021년 기간 동안 18억 8,000만 달러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하여 5개의 태양광 발전소와 13개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며, 먼저 사마르칸드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추진함.

#### □ 국내, 국제 운송망과 에너지 수송망 건설을 통한 경제발전 잠재력 보유

- 안그렌-팜 철도 건설을 통한 국내외 연결 철도 운송망을 개선하였으며, 철도 전력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페르가나 지역과 다른 우즈베키스탄 지역을 연결하는 안그렌-팜 철도를 건설하여, 키르기즈와 중국으로 연결되는 물류망을 개선하였음.
- 철도 부문의 현대화를 위해 다자개발은행의 지원 등을 통해 마로칸드-카르쉬, 카르쉬-테르메즈, 나보이-미쉬켄트, 코간드-안디잔 등 주요 철도 구간의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음.
- 중국으로 연결되는 가스관을 건설하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중국으로 연결되는 중앙아시아-중국 4차 가스관을 건설하고 있음.

#### □ 중앙아시아 최대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 증가 추세

- 2015년 기준으로 인구수는 3,130만 명으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으며, 중등교육 취학률도 95%에 달하여 교육수준이 높은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

- 인구는 1991년 독립 직후 2,060만 명에서 2000년 2,465만 명, 2010년 2,856만 명, 2015년 3,130만 명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10년 동안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1.78%에 이르고 있음.
-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68.8%, 15세 미만 인구가 26.5%, 64세 이상 인구는 4.7%를 기록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은 26세로 풍부한 노동력 보유.

#### 다. 정책성과

□ '2017~2021 우즈베키스탄의 향후 발전전략'이 2017년 2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령으로 발표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향후 5년 임기 동안의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함.

- 5대 추진 방향은 경제발전과 자유화, 정부와 사회의 민주주의 개혁 및 제도 확립, 법치 보장과 향후 법제도 시스템 개혁, 사회부문의 발전, 안전보장과 민족간 화합 및 종교적 관용, 건설적 대외 정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가운데 '경제발전과 자유화'의 주요내용은 경제의 현대화와 산업다각화, 금융 시스템의 대대적 개혁, 개인 소유와 기업 활동의 절대적인 보장, 대외경제관계 확대,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효율적인 관광부문 발전, 농업 개혁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됨.

□ '2017~2019 완제품 및 조립품 생산의 국산화 프로그램'을 2017년 2월 발표

○ 이 프로그램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부문의 국내생산 비중을 높여서 산업다각화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로 추진됨.

- 2000년부터 추진된 수입대체정책을 통해 55억 달러 규모의 4,800여개 생산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게 되었고, 2017년에도 11억 달러 규모의 수입대체 생산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평가됨.
- 제조업의 국산화 비중은 2017년 36%, 2018년 45%, 2019년 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까지 34억 달러에 달하는 1146건의 국산화 프로

젝트가 추진될 전망으로, 122개의 상품에 대해 국내생산이 추진됨.

#### □ 신규 경제특구 지정을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

- 2017년 1월의 대통령령으로 기존의 나보이, 안그렌, 지작 3개의 자유경제구역에 새롭게 4개를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함.
  - 새로운 자유경제구역을 사마르칸드주 우르곳(Urgut), 부하라주 기지두반(Gijduvon), 페르가나주 코칸드(Kokand), 호레즘주 하자라습(Hazorasp) 등 네 곳으로 향후 30년 동안 자유경제지역으로 운영되며 연장 가능함.<sup>1)</sup>
  - 투자유치 부문: 우르곳(기계, 자동차), 기지두만(과일 및 농산물 가공, 섬유), 코칸드(신발, 가죽, 환경 친화 화학), 하자라습(제약, 식료, 건축자재) 등.

#### □ 미르지요예프 신정부의 경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정책

- '기업활동 발전, 사적소유 보장, 비즈니스 환경 향상을 위한 추가 방안' 대통령령 2016년 10월 발표
  - 사적 소유권에 대한 보장, 관료규제 해소 등을 통한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유치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주요 내용으로는 2017년 1월 이후 기업 활동에 대한 비정기적 감독조사 제도 폐지, 의회내 기업활동 보장을 위한 기구 설립,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은행 규제 완화, 반부패 법 제정 등을 포함하고 있음.
- 투자의 최대 문제점인 외환 관리제도 개선
  - 2017년 2월 1일부터 천연가스, 곡물, 광물 등을 비롯한 16개 품목을 제외하고 수출 소득의 의무 환전비중을 기존의 50%에서 25%로 인하하였음.
  - 이외에도 정부는 2,000 달러 이내의 외화 국외반출 신고의무 폐지, 외환 시장에서 법인 설립 없이 외화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외환시장 자유화에 대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음.

1) <https://regulation.gov.uz/ru/documents/1080>

## 3. 대외거래

&lt;표 2&gt;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2016 <sup>e</sup>	2017 <sup>f</sup>
경 상 수 지	1,631	454	93	64	159
경 상 수 지 / G D P	2.9	0.7	0.1	0.0	0.2
상 품 수 지	-524	-1,835	-500	-340	137
수 출	13,504	12,903	11,500	11,320	11,647
수 입	14,028	14,738	12,000	11,660	11,510
외 환 보 유 액	13,014	13,544	12,404	11,581	14,180
총 외 채 잔 액	10,681	13,389	15,698	18,549	18,769
총 외 채 잔 액 / G D P	18.7	21.2	24.0	27.8	28.0
D S R	4.8	5.9	6.6	3.6	4.4

자료: IMF, EIU, OECD.

## □ 경상수지 흑자규모 및 외환보유고 감소 추세

- 경상수지는 최근 주요 수출품인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라 흑자 규모 감소 추세
  - 2016년 GDP 대비 경상수지는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해외근로자 과실송금 축소 등에 따라 0%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에도 0.2%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외환보유액은 2014년 135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원자재 수출액 감소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 규모 감소에 따라 줄어들고 있으며, 2015년에는 124억 달러, 2016년에는 116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평가됨.

## □ 총외채규모는 증가 추세이나, GDP 대비 낮은 총외채잔액 비중

- 총외채잔액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도 증가 추세
  - 총외채잔액은 2015년의 157억 달러에서 2016년에는 186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비중도 2015년에는 24%로 2016년에는 27.8%로 증가하



였음.

- 2017년에는 총외채잔액이 187.7억 달러, GDP 대비 비중이 25.6%로 전망되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외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은 증가추세이나 2016년 3.6%에 불과하여 유동성 위험은 낮은 수준임.

### Ⅲ. 정치·사회 동향

#### 1. 정치안정

- 2016년 9월, 지난 25년 간 대통령직을 수행한 카리모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2016년 12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미르지요예프 전 총리가 대통령으로 선출
- 2016년 12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율 87.8%, 득표율 88.6%의 높은 지지율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선출되었음.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카리모프 전대통령의 기존의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 더욱 긴밀한 협력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사회소요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취임으로 사회 안정
- 세계경기 침체와 에너지 가격하락에도 6.0%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며, 반정부 시위나 집회가 발생하지 않음.
- 25년 집권한 카리모프 전대통령의 후계 구도에 대한 불안정이 사회적인 불안 요인이었으나,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을 유지함.
- 기존 이슬람 운동단체와 IS간의 연계를 통한 테러 위험 잠재
- 1998년 설립되어 아프가니스탄, 남부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등에서 활동

하고 있는 IMU(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는 향후 IS와 연계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음.

- IMU는 알카에다, 탈레반 등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으며, 2000년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 단체로 지정되었음.
- 우즈베키스탄에 이슬람 신정일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무장 세력 단체인 IMU는 2015년 8월 IS와의 협력을 선언한 바 있음.

### 3. 국제관계

#### □ 중앙아시아 주변국들과 협력 확대 추진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취임이후 첫 해외방문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을 2017년 3월 초 방문하여 다양한 경제 부문에서 협력 확대를 논의함.
  -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연결하는 기존의 노후한 아무다리야 강 철교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교 개통을 통해 양국 간의 운송망이 개선되었음.
  -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우즈베키스탄 교역에서 카스피해의 투르크멘바쉬항 이용,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전력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수출, 투르크메니스탄 석유의 우즈베키스탄 정유공장으로의 수출 등이 논의됨.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17년 3월 말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논의함.
  - 양국 간에는 교역 확대, 운송망 개선, 우즈베키스탄 GM 자동차의 카자흐스탄에서의 조립 등이 논의되었으며, 8억 4,000만 달러에 달하는 92건의 MOU가 체결되었음.
  - 양국 간에는 2017년 3월 22일 타슈켄트와 알마티를 연결하는 고속철도가 개통되었음.

#### □ 중국과의 협력관계 강화 추세

-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을 통해 중국으로 가스를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행(AIIB)에도 참여하고 있음.

- 중국으로의 가스 수출이 늘어나고 제조업 제품의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2015년 기준으로 대중국 수출이 전체 수출의 20.8%, 수입의 17.1%를 차지하여 전체 교역의 19.6%로 1위를 기록하고 있음.

#### □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 지속

-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 주도의 관세동맹,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 러시아와의 협력에 소극적이었음.
  - 2012년 6월 말 러시아 주도의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에서 탈퇴하고, 중앙아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개입을 반대하며,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여 왔음.
- 향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안정적인 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17년 4월 러시아 방문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정치, 경제, 교역 부문의 협력 확대를 논의함.
  - 2017년 4월 양국 간에는 석유 화학 분야를 포함한 16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50개의 MOU가 체결됨.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 양호한 수준의 외채상환태도

- 2016년 10월 말 기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인수승인 잔액은 단기 2억 2,310만 달러, 중장기 10억 9,930만 달러 등 13억 1,640만 달러이며, 중장기 여신 가운데 30만 달러가 연체되고 있음.

### 2. 국제시장평가

#### □ OECD 6등급 유지

- OECD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하여 2008년에 6등급을 부여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음.
- 3대 신용평가기관인 S&P, Moody's 및 Fitch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OECD	6등급 (2017. 1)	6등급 (2016. 1)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2년 1월 29일(북한과는 1992년 2월 7일)
- 주요협정: 세관협력협정('99), 형사사범공조조약('04), 사회보장협정('06), 외교관 여권사증면제협정('09), 근로활동협정, 군사비밀보호협정(이상 '12), 관광협력협정('13)

**<표 4> 한·우즈베키스탄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14	2015	2016	주요품목
수 출	2,032	1,284	928	자동차부품, 자동차, 원동기 및 펌프
수 입	27	16	20	천연섬유사, 제지원료
합 계	2,059	1,300	947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2016년 말 누계, 총투자 기준): 266건, 6억 7,470만 달러

### V. 종합의견

- 2016년에는 에너지 자원 등 원자재 국제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6.0%로 하락하였으며, 2017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경제성장률은 6.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는 원자재 국제가격의 하락에 따라 GDP 대비 흑자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2014년의 2.2%에서 2015년에는 0.9%, 2016년 0%로 점차 하락하

였으며, 2017년에도 0.1%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2017~2019 완제품 및 조립품 생산의 국산화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제조업 국산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및 농업 이외의 산업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17년 2월 '2017~2021 우즈베키스탄의 향후 발전전략'이 대통령령으로 발표되었으며, 새로운 정부의 경제 및 제도, 사회 개혁 등에 관한 5대 주요 추진방향을 포함하고 있음.
- 최근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고 외채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2016년 기준으로 GDP 대비 총외채 비중과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은 낮은 수준으로 양호한 외채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선임연구원 조영관(☎02-6255-5759)  
E-mail: ykj@koreaexim.go.kr